

인성과 IT의 조화를 추구하는 '성결대학교'

김성영 | 성결대학교 총장

■ 건학 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성결대학교는 민족의 선각자 중 한 분인 영암(靈岩) 김응조(金應祚) 박사에 의해 1962년 9월 20일 설립되었다. 설립자인 영암은 구한말 개화기인 1896년 출생하여 당시로는 드물게 신·구학문을 겸하여 터득한 분이다. 일제치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신학을 공부하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대표의 한 사람으로 가담, 1년 6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옥중에서 성경을 통달하고 일생동안 주경신학자로 『성경주석』 등 50여 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대부흥사이자 교육자로 1세기 가까이 사셨다.

이처럼 설립자의 나라 사랑하는 사상에 의해 세워진 본교이기에 개교 초기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교회와 사회 각 분야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일꾼들을 적극 배출해 왔다. 설립 당시에는 교회지도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로 출발했으나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

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과들을 증설, 점차 종합대학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초 본교가 정규 대학으로 개편됨으로써 본격적인 종합대학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서울 서대문구 행촌동에서 문을 연 본교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인 안양으로 캠퍼스를 이전, 지방화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보다 폭넓은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시설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건학 40여년의 역사 속에서 내적 성장과 외적 부흥을 꾸준히 이루어 온 결과, 오늘에 와서는 학부생 5,000명에 주야간 6개 단과대학 15개 학부, 2개 학과와 전공을 갖추고 6개 대학원에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어엿한 기독교 명문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다.

■ 교육의 특성

성결대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 정신 위에 전인교육을 수행함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학의 본래적 사명



▲불꺼지지 않은 연구실 ... 성결대학교의 밤 전경

인문사범관, 체육관(학생회관)▼



과 기능이 교육·연구·봉사인데, 본교는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을 철저히 교육하고 교수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추구하되 그 근본 바탕이 기독교정신인 요 그 최종 목표를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를 위한 봉사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본교는 신앙화·전문화·봉사화를 본교 교육의 3대 특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이는 본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 넓게는 홍익인간으로서 무릇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양성의 범주를 우리의 교육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본교의 건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역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교육의 궁극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는 초고속 정보화시대는 우리의 교육을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과 정보교육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사실이다. 인성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교육에 소홀하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지식인을 길러내는 일에는 성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성과 전문 지식의 균형감을 갖춘 인재양성에는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식인들의 불미스러운 모습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술이다”라고 언급한 시인 노발리스의 말처럼, 본교는 철저히 인성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식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함축하자면 본교는 “인성과 IT의 만남과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에 주력한다.

본교 인성교육은 입학생 중심으로 제자반 활동과 전 학년에게 적용되는 체플을 통한 지도,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 등으로 이루어진다. 본교가 최근에 시작한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운동은 “지역교육 지원·봉사운동”으로서 전 교수·직원·학생이 삼위일체로 전개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이자 봉사교육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결성식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자원봉사▼



■ 본교의 발전계획

본교는 설립자 이후 역대 총·학장이 이룩한 업적의 기반 위에 2002년 개교 40주년을 계기로 ‘아름다운 대학’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제2의 창학정신으로 새출발하게 되었다.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미(美)의 시대요 정신적 예술산품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대학은 능동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신앙·학문·인격·환경 등 네 국면에 공히 추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본교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신앙의 강화, 학문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력 강화, 대사회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추구하고 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교의 신앙화교육이 일반대학에 비해 현실적 핸디캡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본교의 건학이념이자 특성화의 하나로서, 오히려 이것이 가져다주는 학교의 분위기는 세속화시대의 큰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타 대학 캠퍼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질서 있고 깨끗한 학내 분위기, 낯선 사람에게까지 인사하는 학생들의 아름다운 예의범절, 스스로 조성하는 성숙된 면학분위기, 봉사에 앞장서는 교직원·학생들의 자발의식 등은 본교만의 자랑이자 특징이라 할 것이다. 어느덧 고교 수험생 부모님들 사이에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대학이 성결대학교라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교는 교육과 봉사에 역점을 두고 수업 결손 없는 철저한 학사진행과 학생 자발참여 속에서의 강의진행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봉사할 줄 아는 지성인’을 길러내기 위해 봉사를 특성화하고 있다. 지식은 있으나 봉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학생은 이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교는 이른바 ‘전공연계 봉사’를 개발하여 실천하고 패스제에 의한 봉사학점화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개교 40주년인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서남부교육공동체’ 운동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봉사

캠페인으로서 교수·직원·학생이 삼위일체로 추진하는 일종의 ‘교육봉사’이다. ‘교육품앗이’ 운동이라고도 하는 이 사업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기관이 먼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불이 밑에서부터 타오르듯이 중·고교의 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학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다가 오늘의 공교육의 현실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때에 지역 교육의 최고기관인 대학이 지역 내의 중등교육기관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의 자치를 위해서도 대학의 필수적인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 본교는 ‘교육품앗이운동’의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2003년에 자체 결의 및 발대식을 갖고, 금년 5월에 결성식을 통해 본교가 위치한 안양을 중심으로 9개 지역도시를 교육연계망으로 형성, 이 지역 교육장·교장·교사들과 협력하여 무기한의 교육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최소한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꾸준히 본교의 역량 범위 안에서 지역교육을 지원·봉사하면 그 보람과 열매는 대학의 경쟁력으로 귀결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본교는 이러한 교육·봉사라는 이중효과와 캠페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야심 있게 추구하고 있다.

■ 장래비전

본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가고 있다. 예컨대 1998년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확정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 해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계획을 몇 차례 단축시키는 수정을 거쳐 2천년대 진입 전에 기독교 명문대학의 위상 확보를 이루었으며, 최근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해서는 2010년 이전에 수도권 상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교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관 겸 체육관·인문사범관 등 교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건학이념의 강화 방안으로 신학대학 전용 캠퍼스 조성을 위한 인근 부지매입 추진, 협소한 진입로 확장공사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교는 이러한 외형적 변화와 시설 보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내면적 충실과 건강한 대학인의 세계관이란 점을 계속 중시, 21세기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세계의 주역이 될 ‘성결인’ 양성에 온 역량을 계속 집중해 가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한국대학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안으로는 지원자 감소로 인한 대학의 존재 위기를 겪고 있으며, 밖으로는 교육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외 유명대학의 진출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 위기의 시대요 수난의 시대이다. 그러나 역사는 도전 속에서 응전의 힘을 길러냄으로써 발전해 왔다. 우리 대학들도 도전을 기회 삼아 오히려 체질을 강하게 하여 계속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우리 성결대학교도 함께 서 있다. 함께 서 있을 뿐 아니라 본교의 투철한 기독교적인 건학이념과 봉사적인 실천력으로 변화의 세기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 성결대학교는 21세기를 앞서가는 전인교육의 모델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